

예 시 답 안

[문제 I]

제시문 [라]는 주요 선진산업국이 경험하고 있는 인구감소 현상을 보여준다. 이러한 인구감소는 부정적인 결과와 긍정적인 결과를 모두 가져올 수 있다. 먼저 한 사회 또는 지구의 부양능력을 넘어선 인구증가는 그 사회 나아가 지구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으로 간주되어 왔다. 같은 맥락에서 제시문 [가]는 인구의 증가와 늘어난 인구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의 확대가 가져온 환경 파괴의 결과로 북부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 사막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구의 감소가 오히려 환경이라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. 반면 인구감소가 야기하는 문제들 중 대표적인 것은 노동인구와 소비 감소로 말미암은 경제위축과 노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위협이다. 제시문 [나]는 일본의 한 지역을 예로 들어 인구감소가 노동력 감소를 가져와 노년층이 생산을 담당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인구감소가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를 조명하고 있다.

[문제 II]

제시문 [마]는 세계화가 진행되면서 이주 노동자와 다문화가정이 증가하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다. 혹자는 제시문 [라]가 보여주는 인구감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한국사회가 이민자에게 문호를 열고 다문화가정을 포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. 제시문 [나]가 보여주듯 인구감소는 그 사회에서 생산을 담당할 노동력 부족 현상을 낳는데,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다문화가정의 증가는 부족한 노동력을 채움으로써 인구감소에 따른 문제를 경감시키는 데 기여한다는 것이다. 나아가 제시문 [마]가 보여주듯 다문화가정의 확대는 인구의 증가에도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다. 제시문 [다] 역시 부족한 노동력을 외국인 노동자가 채우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. 그러나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현재 한국으로 이주하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제시문 [다]에서 보듯 단순 일용직이나 단순 기능직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. 이들이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면, 지금 당장은 부족한 노동력을 채우는 기능을 할 수 있지만 한국경제의 경쟁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계층갈등의 한 원인이 될 수도 있다.

[문제 III]

각 정책의 수혜가구의 수를 각각 A, B, C라 하면, 정책 수혜가구의 총합은 $A + B + C = 2500$ 이고, 출산장려금 수혜가구의 수는 다른 두 정책 수혜가구 수의 합이므로 $A = B + C$ 다. 순수한 구의 예산은 전체 비용 - 정부보조금 - 서울시지원금 이므로 $20000 = (10A + 20B + 30C) - 0.5(10A + 20B + 30C) - 1250$ 이다. 이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정책 A의 수혜가구는 1250가구, B의 수혜가구는 750가구, C의 수혜가구는 500가구가 된다. 제시문 [마]에서 응답자들은 출산기피 원인으로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지적하고 있고, 그 비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. 반면 D구의 세 가지 출산장려정책 중 육아보조비 지원은 수혜가구 수가 500가구로 가장 적다. D구의 출산장려정책이 보다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자녀 교육비와 양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육아보조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.